

대립 제3주일

기도서 P. 216 B해

제1독서(이 사61, 1-2a. 10-11)

제2독서(데살전 5, 16-24)

복음(요한 1, 6-8. 19-28)

# 숲정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사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 전주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5098 ☎ 3201

### ▶ 감론



## 기뻐하는 마음

김영일 신부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데살전 5, 16-17) 사도 바오로께서 가르쳐 주신 신자상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과 한국 초대교회 교우들은 이와같이 생활하면서 항상 기쁘게 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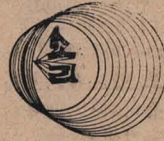
세월이 흘러간 요즈음엔 기도는 하지만 차츰 감사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생활로 변했고, 오늘의 신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흐려져가기 때문에 신앙생활 속의 기쁨은 별볼일 없이 되어가게 됩니다. “늘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는” 마음과 행동이라면 언제나 기쁘고 평화로우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때때로 대화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말과 같이, 불쌍한 자에게 동정하고 하느님께 감사의 정과 감사의 예물을 봉헌 할 때 얼마나 포근한 마음 가집이 되겠습니까!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은 일종의 적극적인 감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도 합니다. 감사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곡식이든 나무에 열리는 열매이든 싹붙지 않은 야채를 바칠 거룩한 것이다. ……소든 양이든 목자가 지팡이로 거느리는 모든 짐승의 십분의 일은 야채를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레위 27, 30-33)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조금도 덜지 말고 성전 곳곳에 가져다 넣어 내 집 양식으로 쓰게 하여라.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झा아 주는지 झा아 주지 않는지 두고 보아라. 만군의 야채가 말한다.”(말라 3, 10)고 하시면서, 감사예물을 봉헌하는 마음 자체는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내야지 야과와 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고린 후 9, 7-8)라고 사도 바오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어서 “그들은 환난을 만나 큰 시련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쁨에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많은 희사를 했습니다.”(고린 후 8, 2)라고 말하며, 희생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셨습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것보다는 행동이 따르는 감사야말로 진짜 감사가 되겠습니다. 항상 기쁘게 사는 사람의 마음은 구김이 없는 것이고, 늘 기도 생활 중에 사는 사람은 평화가 있을 것이며,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 속에 생활할 것입니다.

〈파티마 천주교회 주임신부〉



##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랑을 강요말자.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산다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가진자가 제 가진 바를 없는자와 나누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선현들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종교의 전부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만의 만족과 안일을 마다하고 이웃의 십자가를 나누어 지고 역사의 길을 순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랑이라는 미명의 가면을 쓰고 영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불쌍한 어린이를 위한답시고 시킴한 제 내장을 채우는 어른들, 그것도 거룩한(?) 이름의 어른들이다. 어른들이 그러하니 젊은이들까지도 그 흉내를 내고 있다. 자신을 간판으로 내세우고 유흥비 마련을 위한 하루 찾집을 열고 티켓을 팔았다는 보도가 바로 그것이다.

또 있다. 사랑을 강요하는 사람들이다. 사랑의 실체는 가르쳐야 할 뿐이지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러기에 사랑의 성금이 할당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슬퍼지기에 앞서서 분노가 치민다. 좋은 일을 위해서 목표액을 정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할당한다는 착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이진 성금이 아니다. 세금같은 모습으로 탈바꿈 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래도 짤짤한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성금을 내야 할 대상을 우습게 보아버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권유린일 수도 있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성금내는 일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안된다. 목적과 수단과 방법은 다 좋아야 한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쬐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 숲정이 산책

신자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 위대한 사랑

박 성 팔 신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사랑이란 말만큼 넓고 깊은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단어도 드문가 봅니다. 그래서인지 불후의 명작에서 통속소설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영화나 대중가요의 대부분이 사랑을 묘사하며,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에로스니 필로스니 아카페니 하면서 사랑을 굳이 나누기도 하고 붙이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 사랑은 그 자체로서 아름다운가 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아름다운 사랑은 우리네 사회에서 가혹하리 만큼, 찢기고 염색되어 옷치 못할 희극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아름다운 단어가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무도 거들며 보지 않는 무관심, 무감각한 사랑이 그렇습니다. 자신만을 내세우는 이기적인 사랑, 쾌락만을 추구하는 동물적인 근성이 그렇습니다. 흉수처럼 밀려오는 악의 세력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거짓 사랑이 난무하는 우리네 사회에 성자가 들려주는 진정한 사랑, 훈훈한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어떤 열심한 신자 한분이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님, 나에게 당신을 좀 보여주세요. 내 그러면 무엇이든 다 따르겠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도 감탄하셨던지, '내가 내일 너의 집에 가겠다.' 하고 약속하셨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신자는 이른 아침부터 집안 청소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며, 주님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초인종 소리가 들려 설해이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더니 거지가 등냥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버럭 내며, 조금 있으면 귀한 손님이 오니 내일 오라고 나무라며, 그 거지를 돌려 보냈습니다. 한 낮이 되어 또 벨이 울리기에 나가 보았더니, 이번에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좀 쉬었다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자는 전과 같이 화를 내며 나그네를 돌려 보냈습니다. 이리저리 하루 해도 지물고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벨이 울리기에 이번에는 주인이겠지 하며 쉼은 가슴을 안고 문밖이 나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절뚝거리는 할아버지 한 분이 앞에 보이는 마을까지 좀 데려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할아버지를 자기 집에 재울수도 없고, 바람도 쏘일겸 해서 절뚝거리는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갈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등에 업은 할아버지가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얼마쯤 갔을까 지칠대로 지친 그분을 보고 할아버지는

쉬었다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열심한 신자는 등에 업은 할아버지를 내려 놓고, 구슬 탐 방울을 뒤엎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애야, 오늘 낮에 너의 집에 갔던 거지가, 나그네가 그리고 내가, 네가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다.' 하시며 사라졌읍니다.

이 짧은 일화에서 우리는 참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 미소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것, 뼈를 짚는 아픔과 고통을 수반한 헌신적 사랑, 바로 이것이 하느님이 원하는, 성현들이 갖았던 위대한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살기가 급박하고 살벌하기까지한 현실에 당신은 성자의 사랑을 살아 보지 않으렵니까?



## 「미사」 봉헌과 예물

「미사」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희생이 되셨던 그 거룩한 십자가상 제사를 오늘에 다시 되풀이 해 바치는 우리의 「공식제사」요 「빠스카」(부활, 구원)의 최고 「홍숭례」(歆崇禮)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미사성제(聖祭)를 통하여 더욱 깊은 사랑과 일치될 다지며, 주님의 그 무한한 성령공로를 빌어 산이와 죽은이를 위해서도 특별한 은혜를 청하고 여러가지 기원을 드린다.

그런데 이 제사(미사)를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 산(生)자나 죽은(死)누구를 위해 특별히 봉헌(奉獻)해 달라고 신청할 때에는 그 지방 주교가 정한 일정한 예물(禮物)을 드려야 한다. 현행 보통 미사예물은 쌀 1말값 정도의 정성을 표하도록 돼있고, 특별한 경우(혼인, 장례 등)엔 일반 상례에 준한 예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사예물」이란 절대로 「미사의 값」이 아니고(미사 은혜를 돈으로 계산 한다면 그것은 미사를 모독하는 죄가 된다), 다만 그 제단에서 봉사하는 사제들에 대한 사례(謝禮)와 그에 사용되는 제물(빵, 포도주) 등의 몫으로 드리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다른 무슨 기도 보다도 존귀한 이 미사의 가치와 공은(功恩)을 생각, 자주 미사에 참례할 것은 물론이고, 또 예물에 너무 구애됨이 없이 죽은 영혼이나 산 이들의 안위를 위하여 열심히 미사를 봉헌하는 신자들이 되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미사에 대한 정성은 우리 신앙의 척도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熙)

종교서적·성화·성물

### 시 문 서 원

이리시 창인동 1가 235번지  
천주교 창인동교회 정문앞  
노 스틸 라(미숙)

훈수옷감·회갑옷감·파티복  
링크담요·수예품·맞춤이불전문

### 한 일 옷 감

전화 ㉠ 7 2 0 3  
전주시 전동 3가  
시내버스 남부배차장 옆  
吳 共 千(도밍고)

☐ 축! 개업

일 시 : 1981. 12. 15 09시

### 순정이 슈퍼마켓

전주시 전북동 1159-5  
전화주문 배달함(순정이성당 앞)  
전화 ㉠ 3 5 5 0  
김원겸(시릴로)·박효송

ECCLESIA

□ 불우 이웃 돕기 한창인 “장제”

대립철을 맞아 장제 본당(주임신부 한봉섭)의 청년회원들이 어려운 형제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마련코저 지난 11월 29일에 1일차집을 열었다. 교우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자진참여로 운영된 순 수익은 268,000여원 이었고, 때 마침 신자들이 모으는 성미와 합하여,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의 선택과 면사무소의 추천으로 선별하여 약 25명에게 백미 2말 정도로 나누어 준다.

교회와 지역간의 유대가 착한 일을 통하여 일체감을 갖는 좋은 기회였음은 물론, 사랑 실천에 관심을 불러 일으켜준 값진 본보기로 칭찬이 자자하다.

□ 해성 중·고 영세 예비자 피정

오는 19일이면 영예의 하느님 아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입적, 세례를 받게 될 120명의 해성 중고 학생들과 선생님 배분이 지난 6일 가톨릭센터에서 하루 피정을 갖았다.

해성학교에서는 그동안 종교감 염기봉 신부님과, 중교 종교주임 그리고 신심 깊은 선생님 몇분이 200여명이 넘는 예비자를 지도해 왔는데 몇차 선발을 거쳐 이번에 이같이 많은 학생들을 입교케 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는 개교이래 최대의 경사, 이웃 선교의 해를 풍성히 맺는 보람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온갖 심혈로 오늘의 결실을 맺게한 선생님들의 노고와 그 뜨거운 신앙열에 깊이 고개 숙이며 지레 감사와 축하의 뜻을 표해 드린다.

□ 주현동, 군인 신자들에게 숲정이 보내

이리 주현동 본당(주임신부 안용기)의 「성실하신 동정녀」쁘레시디움에서는 매 주마다 교구보 숲정이를 본당 출신 군인 신자들에게 보내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군대(軍隊)의 특수한 환경에서 소임에 충실한 형제들에게 신앙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전선과 고향 교회와의 친밀감을 주기 위하여 편지와 함께 보낸지도 벌써 5년째 접어들었다.

한 때에는 사회 현실 기사를 많이 게재 했던 관계로 배달이 중지되거나, 상급자의 눈치로 인해 받기를 두려워 하기도 했던 우여곡절 속에서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장한 일을 벌리고 있는 이 단체의 발전을 축원하며, 어떤 모습이든 군인들에 대한 더 큰 관심을 우리 서로 갖도록 힘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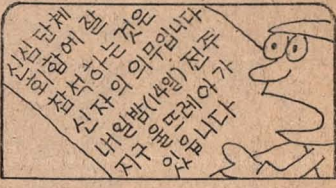
□ 82년 꾸르실로 교육, 단 1회

꾸르실리스타의 현주소 찾기

82년도 꾸르실로 교육이 1월 4~7일(여성)과, 9~12일(남성)에 걸쳐 남녀 각 1회씩 있다. 교육 기회가 단 한 번 뿐이어서 희망자가 넘칠 것으로 예상된다. 희망자는 신부님과 상의하여 12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수강자격은 ① 30~55세, ② 영세후 3년 경과, ③ 고졸이상의 학력, ④ 수강하기에 적합한 건강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신청자가 많으면 심사하게 된다.

그간 전주교구에서 꾸르실로 교육을 받은 형제자매는 1,129명으로 밝혀졌다. 그간 우리의 결을 떠난 분도 있고, 교구 밖으로 옮긴 이들도 많다. 아울러 교구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주소를 옮겼다. 사무국은 본당 사무장님의 협조를 얻어 꾸르실리스타의 현주소를 파악하기로 했다. 꾸르실리스타들은 본당 사무실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

요심이 (437) 김병오



상당수준의 교칙본(체르니, 쏘나타) 소화자에게 약보없을 시도 반주해낼 수 있는 쎄미 크라식 반주법의 회소식

쎄즈 · 크라식

피아노 반주법

각 본당 전자오케일 구입시 상담 및 협조해 드립니다.

성악 : 음대 지망자나 가요계 지망자

전화 ③ 3770

일일규(알로이시오)

※ 구 역전과 전교중간 사거리 전북은행 노송동지점 앞

□ 생화·각종화분·신부부케 교우분들, 자주 들려 주세요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2628

범띠도(떡배) · 이 마리아

주단 · 포목(훈수·회갑옷갑)도매상 각종침, 이불(밍크)카펫지 도매상

서 울 주 단

전화 ③ 045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결 (축) 혼

신랑 : 손 병 열(가브리엘)

신부 : 유 순 목(가타리나)

일시 : 1981년 12월 15일(10시)

장소 : 고산 천주교회

###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사목 지침 연수회: ① 회장단-12월 19일 ② 임원단-12월 20일, 오후 2시~5시
2. 감사위원 및 재산관리 위원장 연수: 12월 14일 10시~16시, 가톨릭센터
3. 전주교구 대학생 합창단 창립 연주회: 일시-12월 26일 오후 4시·7시 30분(2회)  
장소-전주 전통 천주교회
4. 제 4 지역 교리교사 연합회 임원개편: 회장-신명호(가브리엘) 노승,  
부회장-박용하(베드로) 파티마·임영숙(안나) 전동

#### (중앙)

주 임 ⑤ 1713 주임 신부 문 정 현  
보·사 ⑥ 1711 보좌 신부 유 종 환  
수·유 ⑥ 1712 보좌 신부 박 인 훈  
사도 회장 김 병 구

- ※ 이주일 성경읽기: 이사야서 45·61장, 마태-1장 21장
- 1. 전화번호 변경안내: 주임신부 ⑤ 1713, 보좌신부·사무실 ⑥ 1711, 수녀원·유치원 ⑥ 1712
- 2. 성모유치원 원아모집: 원서판매 및 접수  
12월 15일 하루에 한함
- 3. 꾸리아 릴레희: 오후 2시 강당, 81년도 연중 친목회  
12월 24일 오후 7시부터 강당
- 4. 가을 판공안내: 12월 12일<토>-주일학교 어린이 오후 2시 30분, 15일<화>-전부·인후·금암, 16일<수>-경원·중노·기타, 17일<목>-중·고 대학생 오후 7시부터, 18일<금>-서노1·서노2·태평2·교사, 19일<토>-학생 및 기타 ※ 성사시간 오후 3~6시, 7시~10시 교무금 완납하고 성사받으시라
- 6. 온풍기 히타 기증: 스타사장 장남수 회장님께서 히타대금을 기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훈배사진은 본당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 6. 성탄 제대꽃 및 초봉헌: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에 접수해 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536, 226원  
특별헌금 의명 3분: 16, 000원 감사합니다

#### (노송동)

주임 신부 김 정 원  
전화 ②7032번 사도 회장 이 흥 재

1. 제2차 전국 봉사자 세미나: 16~18일(2박3일)  
자세한 내용은 성령체신지 50호 참조
2. 축! 영세식: 21일<월> 대부분님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3. 금주의 성경읽기: 신약의-베드로 전·후서, 요한-1·2·3서, 유다서 전체
4.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5. 성모회 릴레희: 오늘 공식미사 후
6. 교무금을 완납하십시오
- 지난주 봉헌금: 291, 340원

#### (덕진)

주임 신부 서 석 기  
전화 ③2182번 보좌 신부 유 영 도  
사도 회장 양 상 열

1. 본당 판공일정: 14~15일-금암동·송천동, 16~17일-덕진동·팔부동 오전 10시부터 12시, 3~6시, 학생은 19일, 구역장님·반장님 수고하세요
2. 봉헌금 속히 납부하십시오. 82년도 봉헌금 신입하세요
3. 81년을 보내며 아기 예수님께 예비자 일인을 봉헌하시고 기도하십시오
4. 성탄 성가연습: 젊은이 학생-14일 저녁부터 매일 7시, 어머니-수요일 오후 1시 30분
5. 성탄 퀘즈 시열범위: 필기구 준비하세요  
마르코복음 전체  
퀘트-주요인물·배경·생애와 업적·수난과 부활
6. 주일학교: 교리 2시, 미사 3시, 지난주 참석자 163
7. 반석회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496, 740원

#### (복자)

주임 신부 김 종택  
전화 ⑤5238번 보좌 신부 김 희남  
사도 회장 조 성호

1. 사도회 임원선출: 선교부장-박상기, 전례부장-유덕열, 봉사부장-장영달, 재정부장-조영호, 교육부장-강기연, 감사-천 건·박홍기, 사무장-이경호
2. 반회장 모임: 13일<일> 저녁미사 (반회장 수첩 드림 설명, 사진촬영)
3. 성우회 총회: 공식미사 후(유사-조영호·이기배씨)
4. 자모회: 14일<월> 어머니미사 후

5. 병자봉성체: 15일<화> 오전 10시부터, 사무실에 접수
6. 영세식: 19일<토> 오후 3시(대부모와 준비 바람)  
유아세례도 있으니 17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람
7. 차주 전례: 해설-안경례, 독서-①장영달 ②조영호
- 지난주 봉헌금: 468, 887원

####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한 혈 수

1. 판공성사: 17일-1·2·3반, 18일-4·5·6반, 19일-국민학생·중학생, 21일-7·8·9반, 22일-10·11·12반, 23일-13반·기타 ※ 시간-오후 2시~7시까지
2. 성탄영세자 특별교리: 14일~19일까지 오후 7시 30분  
※ 참고 17일 오후 7시 30분
3. 꾸리아: 13일(일요일) 오후 2시
4. 반장님 릴레희: 공식미사 후
5. 성가연습: 매일 저녁미사 후(7시 30분)
6.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한혈수 ②박장춘
- 지난주 봉헌금: 207, 160원 교무금: 287, 100원

####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수·유 ⑥9567 사도 회장 김 수 결

1. 사도회 분과위원 소개: 선교분과위원-김창영·임병택·이종상·황현도·남상용, 전례분과위원-김경주·정주부·홍성조·이원길, 봉사분과위원-안재구·이근창·권영순·오순례·백유남, 재정분과위원-이동선·김남곤·이원일·박병열
2. 성모회 릴레희: 12월 20일 공식미사 후
3. 예비자 유아세례식: 23일 오후 2시
4. 직장인 및 중고생 판공: 12월 오후 6시, 13일 오전 9시~오후 6시
5. 원아모집: 16일~20일까지 선착순 접수
6. 전례담당: 해설-이기호  
독서-①이동선 ②김영철, 기도-정주부
- 지난주 봉헌금: 360, 080원

#### (전동)

전화 ⑥6208 주임 신부 김 병 엽  
사부 ③2222번 보좌 신부 박 병 준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이 종 두

1. 모든 신심단체 보조지출금 동결, 교구비 완납시까지
2. 교무금은 교회법에 관한 것임, 판공성사시까지 완납
3. 81년 12월 31일까지 교구비 미납시 성사·전례중지
4. 영세자 집중교리: 15일 7시 30분부터 4일간  
영세 19일 저녁미사중에
5. 판공성사 실시: 13일<수>-주일학교, 16일<수>-금년영세자, 17일<목>-풍납·남노, 18일<금>-동교·서교동, 19일<토>-중·고학생, 22일<화>-동완산·서완산, 23일<수>-중앙·경원·다가·전동·기타
6. 성심유치원 원서: 15일 하루 교부함
7. 자모회: 공식미사 후, 장우회-저녁미사후 총회있음
8. 성화회: 다음주 20일 공식미사후 총회 있음
9. 오늘 3시미사후 응원대회 있음
10. 개 찾아가시오(암개, 어미개 황백색)
- 지난주 봉헌금: 449, 530원

####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 영 일  
사도회장 채 수 현

1. 판공성사는 다음주일까지 마감  
① 성사표를 지참할 것(교백시 성사표 제출)  
② 박종상·엄기봉 신부님께서 판공성사를 주십니다
2. 들뜨지 판공일: 16일
3. 교무금 신입: 오늘부터 25일까지 ※ 기일내(25일) 신입 안하신 분은 사도회 책정에 따르십시오
4.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12월 말까지
5. 미사시간 변경: 평일 아침미사-월요일 6시 30분 뿐
- 지난주 봉헌금: 169, 340원 교무금: 119, 000원